

광주·전남 올해 노인 일자리 4만8천개 만든다

〈1만6499개〉 〈3만1885개〉

광주시, 주차지킴이 등 신설 전남도, 시·군별 통합 모집 공익활동형 활동비 인상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1266억원을 투입해 4만8374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 이는 지난해보다 3415개가 증가한 수치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411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만6499개를 만들고, 전남도는 855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3만18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162개가 늘어난 수치고, 전남도는 2253

명이 지난해에 비해 더 증가했다. 광주시는 올해 공익활동형 1만2959개, 시장형 2140개, 인력파견형 800개, 재능나눔 600개 등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한다. 민·관협의체에서 제안한 '장애인 주차지킴이'(86개), '공공시설 민원 안내'(116개),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59개 중·고교 화장실 환경을 정비하는 '우리학교 깔고미'(328개) 등 3개 사업 총 530개가 신규 운영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은 각 자치구와 광주복지재단으로 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자치구별로 다르며, 동구(2월 1일~2월 9일), 서구(2월 5일~2월 9일), 남구(1월 29일~2월 9일), 북구(1월 31일~2월 7일), 광산구(1월 24일~2월 2일), 광주복지재단(1월 29일~2월 9일) 등

이다. 참여대상은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적합하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다.

시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위원회, 노인일자리 민·관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도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시·군별 통합 모집에 나선다. 전남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노케어, 지역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추

진하고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 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자격 조항 등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며, 3월부터 12월 사이 9개월 동안 주 2~3회, 하루 3시간, 매월 총 3시간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특히 지난해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이후 공익활동형 사업 참여자 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북구 도시재생 토론회 1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광주와 북구의 지속성장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괜한 오해 사지 맙시다”

윤장현 광주시장, 출판기념회 공직자 참석금지

윤장현 광주시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요구하며, 오는 3일로 예정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직자가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윤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실·국장 등과 함께 한 공감회의에서 “지금 시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선거보다도 현장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흐트러짐 없이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간부회의에서도 몇차례 말했지만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기강, 정통성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판기념회 참가는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SNS에 ‘좋아요’를 눌러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과거 자녀 결혼, 위암 수술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윤 시장이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이 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역에 역사박물관 만들어 활성화하자”

문상필 광주시의원 발제

광주역 부지를 근현대역사관과 광주역 사박물관 등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와 북구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3) 의원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150여명의 지역민과 도시재생, 문화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박종찬 광주대 경영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고, 문상필 의원의 ‘광주와 북구의 지속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모델’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했다.

지난해 광주역 존폐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문 의원은 발제에서 “북구 주민들은 광주역 유지(52.7%)에 대한 의견이 다소 높았지만 이는 불가능한 KTX 재진입 기대 심리와 광주역이 사라진다는 정서적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자치구 주민은 KTX 재진입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광주역 철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65.08%)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역 철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주역 인근 중흥1·2·3동과 신안동·임동 주민들에게 많게는 76.9%까지 높게 나타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검·경, 이용섭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검토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수사

검찰과 경찰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의혹 수사를 일원화했다. 검·경은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부위원장을 참고인 등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고발장을 이미 경찰에 고소돼 있는 동일 사건과 병합,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성격이 같고 중박수사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병합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많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치밀하고 강도높은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과 상시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디테일한 수사방법까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피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또는 소환조사 여부는 앞으로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중인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 자료들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조사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수사 결과 및 방향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은 이 부위원장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상 후보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 부위원장 명의로 대량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한 사이트의 가입자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만간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명단 입수 과정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2일 신년 인사를 겸해 자신의 공직 업무성과를 설명하고 영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민주당 광주시장 관리지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내 당원명부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 광주시장 출마

윤민호(사진)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1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 위원장은 “촛불의 힘은 현정질서를 깰만큼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앞당겨 탄생시켰지만 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며 “촛불은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했지만 내 삶이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부의 독점이 낳은 특권과 반칙은 ‘갑질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특정 정당의 독점은 줄 세우는 정치, 유권자를 무

시하는 갑질 정치를 낳았다”며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있다는 광주의 자긍심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태고교를 나온 윤 위원장은 민주당 노동당·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민중당은 이날 윤 위원장을 포함해 광주 광역비례의원, 광주 광역의원, 기초의원 의원 등 21명의 지방선거 후보 출마자를 발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성수 전 광주도시철도본부장 광산구청장 출마

장성수(사진)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1일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장 전 본부장은 “광산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광주를 먹여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의 생존 기반이자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 자치구”라며 “저는 더 나

은 광산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광산이 안고 있는 현안과 광산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아

는 사람, 평생을 광산과 함께 살아 온 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TÉLÉSIS Paris

텔레시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시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 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렉터 & 브랜드 운영